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조사*

김 명 숙**

본 연구는 초등 음악과 수업 컨설팅 메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초등 교사들이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컨설팅 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문항으로 '일반 배경', 음악 수업 일반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과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묻는 문항',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음악 수업 컨설팅과 경험 및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 '수업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주제어 : 음악수업 컨설팅,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교육, 요구조사

차 례

I. 서론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2. 조사 도구
3. 자료 처리

III. 분석 결과

1. 음악수업 컨설팅 참여 경험 및 인식
2.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 인식
3. 음악 수업 컨설턴트 자격

I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G00007).

**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시간강사

I. 서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계발과 활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재 양성의 중심인 학교교육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교과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즉,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혁신은 유능하고 우수한 교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직접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사이며,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직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서 ‘교직은 전문적이다’라는 관점이 가장 우세하다(주삼환,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학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 자격증을 받고 임용 고사를 통과해서 교단에 서게 된다 하더라도 전문적 영역에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초등 교사의 능력은 교사의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에서 기초가 형성되고 임용 후 학교 현장에 근무하면서 교과의 전문성이 발전된다. 하지만 음악 교과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교과중의 하나라고 교사들은 말한다(석문주·황병훈, 2008. 9p). 음악교과는 교사의 음악적 능력이 질 좋은 음악 수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지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음악적 능력이나 개념은 단시간에 습득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적 능력이 부족한 교사인 경우 음악 수업을 부담스러워 한다. 이러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음악 교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장학 혹은 컨설팅¹⁾이라 한다.

1)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주기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장학 혹은 컨설팅이다. 장학은 위에서 아래로 지시적이거나 권위적이며 장학사 중심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컨설팅은 도움을 받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위·아래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적이고, 민주적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학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과거의 집단 장학에서 개별 장학으로, 교장·장학사 중심의 장학에서 동료 장학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교수 학습의 질 향상이 중시되고 방법면에서도 자율적인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몇몇 학자들은 경영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기법을 학교 장학에 새롭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진동섭·김도기, 2005; 김태수, 2006; 진동섭·홍창남·김도기 공저, 2009).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인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에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 및 실천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 장학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초임 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 및 사회성, 행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이주연·정혜영, 2003),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외국에서는 교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컨설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교사들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지, 컨설턴트와 의뢰인의 관계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rnold, 2005; Milhagga, 2006).

국내에서 이루어진 교과 교육에 대한 컨설팅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춘석·송현순·김종우(2008)는 문헌연구 및 교사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 실과 수업 컨설팅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는 실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과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교 요구에 맞는 실과 교과 컨설팅을 개발한 것이다. 최선영·노석구(2008)는 초등학교 현장은 스스로 수업의 질적 개선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수업에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어떤 내용의 컨설팅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권덕원·송정희(2007)의 연구는 초등 국악 수업영역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는데, 국악 수업컨설팅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 음악 수업 컨설팅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 석문주·황병훈(2008)은 음악수업에서 교사가 보는 다양한 관점을 중심으로 음악 수업

case 개발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음악수업 컨설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음악교과인 경우 타 교과에 비해 초등교사에 대한 수업 컨설팅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음악에 관한 초등 교사들의 음악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즉, 음악수업 컨설팅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한 내용은 초등 음악과 수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초등 교사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실제적 측면을 알아보는데 적합할 것이며, 향후 초등 교사들의 음악 수업컨설팅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 컨설팅의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초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사는 총 43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배경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가 277명,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76명,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는 86명이었다. 근무 경력별로는 10년 미만이 203명, 10년에서 20년 미만 교사가 103명, 20년 이상이 133명이었다. 조사대상의 61.9%에 해당하는 272명은 교대 4년 졸업생이었고, 대학원 졸업생이 82명, 교대 2년 졸업생은 42명, 기타 중초 임용이나 일반대학 졸업자는 9.8%에 해당하는 43명이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서 먼저, 초등학교 음악 교사 5명과 음악교육 전문가 3명과 협의하여 설문 영역을 설정한 후 세부 영역을 기초로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총 3차례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에는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대한 설문에 앞서 컨설팅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음악 수업 컨설팅이란 음악 수업의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장학사(관리자)/교사/음악가(컨설턴트)가 상담이나 자문을 통해 다른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뜻한다”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경 변인과 관련하여 설문 대상에 대한 ‘일반 배경’에 관한 문항 5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과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묻는 문항 11개,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음악 수업 컨설팅과 경험 및 참여 의향’을 묻는 문항 11개, ‘음악수업 컨설턴트 자격 요건’을 묻는 문항 3개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처리

모든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 후 수거하였으며, 수거한 설문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설문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배경 변인별로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WIN 17.0이었다.

Ⅲ. 분석 결과

1. 음악 수업 컨설팅 참여 경험 및 인식

초등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 수업 컨설팅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79.5%에 해당하는 교사가 음악 수업 컨설팅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한두 번 받아보았다는 응답은 19.1%, 여러 번 받아 보았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는 교사들이 음악 수업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표 1> 음악 수업관련 컨설팅에 대한 경험

(N= 전체 응답수)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계
N	350	84	6	439
%	79.5%	19.1%	1.4%	100.0%

기회가 주어진다면 음악 수업 컨설팅을 받아보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2>에서처럼 ‘컨설팅을 받을 의향’에서는 ‘받아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0.9%로 ‘의향 없다’(10.5%)와 ‘잘 모르겠다’(28.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음악수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제공할 의향이 없다’(33.7%), ‘제공할 의향이 있다’(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 수업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컨설팅을 다시 받거나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컨설팅이 교사들의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음악 수업에 대한 컨설팅 참여 및 제공 의향

의향	컨설팅을 받을지에 대한 응답			컨설팅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		
	경험 유	경험 무	계	경험 유	경험 무	계
의향 있음	61(68.9%)	206(58.9%)	267(60.9%)	24(27.0%)	84(24.0%)	108(24.6%)
의향 없음	6(6.7%)	40(11.4%)	46(10.5%)	26(29.2%)	122(34.9%)	148(33.7)
잘 모름	22(24.4%)	104(29.7%)	126(28.6%)	39(43.8%)	144(41.1%)	183(41.7)
계	89(100.0%)	350(100.0%)	439(100.0%)	89(100.0%)	350(100.0)	439(100.0%)

음악 수업 컨설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87.0%가 ‘좋은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8.0%), ‘공식적인 수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4.6%), 기타(.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음악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음악 수업에 대한 컨설팅의 필요성 (N= 전체 응답수)

	공식적인 수업준비	개인적 발전	좋은 수업	기타	계
N	20	35	382	2	439
%	4.6%	8.0%	87.0%	.5%	100.0%

2.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 인식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한 결과 <표 4>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1.5%가 음악 수업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31.1%), ‘느끼지 않는다’(17.4%)순으로 나타났다

다. 특히 음악 수업 컨설팅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음악 수업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53.0%)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응답한 비율(45.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음악 수업 컨설팅 참여가 교사들의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음악수업에 대한 부담감 정도

경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느낀다.	매우 많이 느낀다.	계
음악수업 컨설팅경험유	3(3.3%)	16(17.8%)	30(33.3%)	34(37.8%)	7(7.8%)	90(100.0%)
음악수업 컨설팅경험무	13(3.7%)	44(12.7%)	107(30.5%)	138(39.5%)	47(13.5%)	349(100.0%)
계	16(3.7%)	60(13.7%)	137(31.1%)	172(39.1%)	54(12.4%)	439(100.0%)

초등학교 교사들은 음악 교과 2개 영역 중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표 5>에 나타난 것처럼 ‘서양음악’(9.8%)보다는 ‘국악’(62.0%)을 훨씬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영역’ 모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였다. 서양 음악과 국악 영역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 정도를 출신 학교별로 확인한 결과에서는 ‘서양음악’에서는 교대4년 졸업생들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국악영역’에서는 교대2년(88.1%), 기타(76.2%), 대학원(66.7%), 교대4년(54.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영역’ 모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대4년(31.4%), 대학원(29.6%), 기타(21.4%), 교대2년(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음악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영역

학력	서양음악	국악	두 영역 모두	계
교대2년	0(0.0%)	37(88.1%)	5(11.9%)	42(100.0%)
교대4년	40(14.4%)	147(54.2%)	85(31.4%)	272(100.0%)
대학원	3(3.7%)	55(66.7%)	24(29.6%)	82(100.0%)
기타	1(2.4%)	33(76.2%)	9(21.4%)	43(100.0%)
계	44(9.8%)	272(62.0%)	123(28.2%)	439(100.0%)

$p < .05$ $\chi^2 = 29.799$

음악 수업을 설계(준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응답자의 42.9%가 '수업 자료를 제작'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재 재구성'(35.2%), '기타'(12.4%), '계획서 작성'(9.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 음악 수업 설계시 어려운점

(N= 전체 응답수)

	계획서 작성	제재 재구성	수업 자료 제작	기타	계
N	42	155	188	54	439
%	9.6%	35.2%	42.9%	12.4%	100.0%

음악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 7>에서처럼 응답자의 30.3%가 '실기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악관련 지식 및 개념 지도'(16.6%), '자료 부족'(15.8%), '시설 등 열악한 환경'(12.4%),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5%대 미만의

낮은 반응율을 보였다. 교사들에게 음악 수업에서 큰 어려움이 음악 실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음악 수업 진행시 어려운 점(복수 응답)

항 목	반응	응답비율
지식 및 개념 지도	196	16.6%
실기 지도	358	30.3%
교수학습 이론은 지도	143	12.1%
평가방법	41	3.5%
자료부족	186	15.8%
발문방법	35	3.0%
동기유발	59	5.0%
시설등 열악한 환경	146	12.4%
기타	16	1.4%
계	1,180	100.0%

초등학교 교사들이 음악 수업에서 서양음악과 국악 영역별 어려움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서양음악에서는 ‘창작’, ‘기악’, ‘음악교육과정’, ‘가창’, ‘감상’, ‘평가’, ‘기타’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악에서는 ‘기악’, ‘가창’, ‘음악교육과정’, ‘창작’, ‘감상’, ‘평가’, ‘기타’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악 영역별 어려움 정도(복수 응답)

영역	서양		국악	
	반응	응답비율	반응	응답비율
음악교육과정	118	17.1%	123	17.8%
가창	94	13.6%	159	23.0%
기악	133	19.2%	210	30.4%
창작	221	31.9%	93	13.5%
감상	75	10.8%	63	9.1%
평가	46	6.6%	36	5.2%
기타	5	.7%	6	.9%
계	692	100.0%	690	100.0%

3. 음악 수업 컨설턴트 자격

음악 수업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표 9>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응답자의 77.9%에 해당하는 교사가 '수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음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가 16.2%, '컨설턴트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였다. '기타'는 1.6%였다. 교사들은 음악 수업에 대한 좋은 컨설턴트는 교과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음악 수업 운영에 관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음악 수업 컨설턴트로 적합한 자격 요건 (N= 전체 응답수)

	수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음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컨설턴트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기타	계
N	342	71	19	7	439
%	77.9%	16.2%	4.3%	1.6%	100.0%

음악 수업 컨설턴트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결과는 <표 10>에서 처럼 전체 응답자의 93.6%에 해당하는 교사가 '동료 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음악전공 교수'는 5.1%, '실기 전공자'는 4.8%, '기타'는 .9%였으며, '학교 관리자나 장학사' 등은 .7%에 불과하였다.

<표 10> 음악 수업 컨설턴트에 적합한 인물 (N= 전체 응답수)

	음악 전공 교수	동료 교사	관리자 장학사	실기 전공자	기타	계
N	22	388	3	22	4	439
%	5.1%	93.6%	.7%	4.8%	.9%	1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음악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음악 수업 컨설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439명을 대상으로 음악 수업 컨설팅 경험 및 인식,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 정도, 음악 수업 컨설팅 자격 요건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내린 결론 및 음악 수업 컨설팅과 관련한 연구자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음악 수업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다고 응답한 교사가 20.5%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 수업 컨설팅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주·이임숙·민병조(2008)의 연구에서는 컨설팅 장학의 유무를 물어 보는 설문에서 ‘경험이 있다’는 75.6%, ‘경험이 없다’는 24.4%로 경험이 있는 교사가 경험이 없는 교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컨설팅 장학을 받은 분야에서는 교과별 교수 학습 방법이 88.0%로 다른 변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본다면 음악교과목이 타 교과목에 비해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의 60.9%에 해당하는 교사가 ‘음악 컨설팅을 받아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수업 컨설팅 경험이 있는 교사의 참여 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경험이 있는 교사는 컨설팅을 통해 음악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움을 받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음악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음악수업 컨설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 수업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7.0%에 해당하는 교사가 좋은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기대와 참여 의지에 비해 음악 수업 컨설팅에 대한 참여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교사들이 음악교과에 대한 중요도를 타 교과 보다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사려된다. 따라서 컨설팅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음악교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음악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컨설팅 모델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통해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음악 수업 컨설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 수업에 대해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음악 수업 컨설팅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수업을 설계(준비)할 때 교사들은 ‘수업 자료 제작’, ‘제재 재구성’, ‘계획서 작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악 수업을 실제로 진행할 때에도 '실기 지도', '지식 및 개념 지도', '자료 부족', '시설 등 열악한 환경',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 음악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컨설팅 자료를 개발할 경우 구체적인 수업 설계나 진행시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과 관련한 실제적인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자료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음악교과의 수업 지원 체제와 관련한 컨설팅 요구에 대비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설 등 열악한 수업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 부족한 수업 자료를 지역 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해당 교육청의 자료 대출 방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컨설팅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양음악보다는 국악 수업을 훨씬 어렵다고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전체 응답자의 62%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진영(2006)의 연구에서도 국악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국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75.7%로 나타났다. 국악연수를 받고 싶은 분야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악지도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악과 관련된 연수나 강습의 부족으로 국악기 실기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우선적인 것이 국악 기악 지도법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과서 국악 내용의 난이도도 어렵다는 의견이 56.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교사의 국악 지도 능력에 비해 교과서의 제재곡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교사의 국악 지도에 대한 부담이 가중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의 내용이 증대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수 능력이 요구되지만 변화하는 교육현실에 교사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국악을 가르치는데 국악 지도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변화, 국악 지도 능력 향상과 같은 내적인 문제의 해결 및 교사를 위한 국악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 및 국악기 구입, 국악 수업에 적합한 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교사들은 ‘수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동료 교사’가 컨설턴트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교사간의 수직적인 장학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음악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음악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돌발적인 상황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교사는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동료 교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사려 된다.

진동섭·홍창남·김도기(2009)는 학교컨설팅을 “학교의 자생적 활력 함양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내외 전문가들이 문제와 과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활동”(p. 31)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이용숙(2006)과 진동섭·김도기(2005)가 지적한 바대로 컨설팅이 ‘지도’보다는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서, ‘장학’에 비해 두 교사(또는 전문 상담자와 교사)가 더 평등하면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컨설팅이 수업 능력이 검증된 교사가 동료 교사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하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임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컨설팅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교사가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경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형성하고 이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음악교과는 교사의 실기를 요구하는 교과목이고 교사의 음악적 능력이 질 좋은 음악 수업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 수업의 질이 반드시 교사의 음악적 지식과 실기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교수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의 부족한 음악적 지식과 실기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적인 문제, 기자재와 수업에 필요한 여러 악기의 부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원활한 음악 컨설팅을 위해 교원 인적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 인적 자원개발이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보다 좋은 음악 수업을 하기 위해 원하는 수업컨설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중심으로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근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의 지역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컨설팅 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송정희 (2007). 음악교과 수업 컨설팅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산학 협력단. RR2006-2-9.
- 김도기 (2005). 컨설팅 장학에 관한 질적 실행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병주·이임숙·민병조 (2008). 컨설팅장학에 대한 초등학교들의 인식과 요구분석. 초등교육연구. Vol. 21, No. 1. pp. 347~369.
- 김태수 (2006). 수업컨설팅 장학 실천모형의 탐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박현주 (2005). 초임 중등교과 교사의 과학교수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발달. 한국과학교육학회, 25권 3호, pp. 421-430.
- 서우석·류희수·여태철 (2008). 수업 컨설팅 이렇게 하라. 교육과학사.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10).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 컨설팅의 실제. 서교연 2010-7.
- 석문주·황병훈 (2008). Case Method를 적용한 음악 수업 컨설팅. 서울: 교육과학사.
- 이경언 (2007). 교과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사례. 열린교육실행연구. 제10호. pp. 65~80.
- 이용숙 (2007). 수업 컨설팅의 방향. 열린교육실행연구. 제 10호. pp.3~30.

- 이진영 (2006). 초등학교 국악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익산.
- 이주연 · 정혜영 (2003). 초등 초임교사의 교직 생활에 대한 인식과 정서. **교육과학연구**, 제34집, 제1호. pp. 125~143.
- 이춘석 · 송현순 · 김종우 (2008). 실과 수업 컨설팅에 대한 요구조사와 기준 개발. **실과교육연구**, 제14권 1호, pp. 45~62.
- 이화진 (2006). 수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및 교과별 내용 교수법 (PCK) 개발 연구. RRI2006-1.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정용우 (2007). 수업 컨설팅이 교사의 수업 효율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주삼환 (2003) **장학의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진동섭 · 김도기 (2005). 컨설팅 장학의 개념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Vol. 23, No. 1, pp.1~25.
- 진동섭 · 김정현 · 신철균 · 이혜나 · 이주희 · 민윤경 (2009). 학교컨설팅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인식 연구. **초등교육연구**. Vol. 22, No. 3. pp. 245~269.
- 진동섭 · 홍창남 · 김도기 (2009). **학교경영컨설팅과 수업 컨설팅**. 서울 : 교육과학사.
- 최선영 · 노석구 (2008). 초등과학 수업 컨설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초등과학교육**, 제27권 제1호, pp. 23~30.
- Arnold, S. K. (2005). *Teacher preparation and formal mentoring by Arnold*. Doctor of Education. Texas A&M University-Corpus christi.
- Milhagga, S. D. (2006). *Factors that affect perceived mentor effectiveness and teacher retention by McIlhagga*.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Minnesota.

ABSTRACT

Survey of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about a Music Class Consulting

Kim, Myungsook

This study aims to analyze, (as a basis to develop consulting areas on music class of the elementary school), the understanding of the music class consulting and where are the required parts for the consulting.

Thus, the following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understanding of the teachers about music class consulting.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background, areas of suggested difficulty in music class management of the teachers, whether they had any experiences or interests, and required qualification as its class consultant.

key words: Music Class Consulting, Music Curriculum, Music Education, Needs Survey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일: 3월 12일(3월 27일), 게재확정일: 4월 13일